하나님께 알맞은 이름 부르기

(사사기 17:1~13)

1.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2.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3.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4.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이백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5.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6.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알맞은 이름 부르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께 알맞은 이름 부르기'
김춘수 시인의 너무나도 잘 알려진 "꽃"이라는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香氣)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기서 '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존재가 이 땅에 있지만 내가 이름을 부르는 그 존재만이 내 마음에 의미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이름을 부르는 존재만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는 무의미해집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라는 말이 간절한 이유는 좋아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사랑의 감정입니다. 짝사랑은 그 사람의 이름은 내 마음 속에 가득 담겨있는데,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내 이름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괴롭습니다.
한 경직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영락 교회에 있을 때에 교인들이 참 많이 했던 이야기가 목사님께서 교인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교인들 자녀의 이름을 잘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은 목사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마주쳤는데 목사님께서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해주시고, 아이의 이름도 기억해주시는데 교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 경직 목사님의 팬이 됩니다. 그 분은 참 다방면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목회를 하실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려서 꽃이 되어 싶어 하는 것인데 이름을 기억 못하니 누군들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름을 불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김춘수 시인의 또 다른 시 "돌"을 일부만 봅니다.

…아직은 나의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무겁게
겹도록 달이 차서
소리하면 당신이 일어설 그때까지
당신의 가장 눈부신 어둠 속에
나의 이름은
감추어 두십시오…

‘무겁게 겹도록 달이차서 소리하면 당신이 일어설 그때까지’라는 말은 ‘당신에게 있어서 내 존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비중 있는 존재가 될 때에 내 이름을 불러 달라’는 것으로 ‘아직은 내 이름을 부르지 말고 어둠 속에 감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불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동시에 이름을 불리지 않기를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대상의 본질에 닿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단지 존재가 지니는 본질에서 분리되어서 제멋대로 떠도는 단순한 하나의 기호가 될 때에, 불리면 불릴수록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의 빛깔과 향기와 본질은 자꾸 왜곡되고 훼손됩니다. 그럴 때에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그 존재의 본질을 망가뜨리지 않는 것이 됩니다. 차라리 ‘어둠 속에 감추어두라’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대상을 관계할 때에 절대로 존재를 직접 관계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그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이나 기호나 모습이나 형상 등을 마음에 담게 되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반응하면서 간접적으로만 그 존재와 관계할 수 있기 때문에 “천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나온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있어서 생각을 합니다. 성실하고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의 진면목을 못 보고 항상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생각하며 관계를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의 배우자의 진면목을 못 볼 수도 있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지금의 환경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마음속에 담긴 이름과 형상과 모습을 담고 생각하면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와 관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 남편과 아내의 진짜 모습과 관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관계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얘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관계할 때에도 역시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관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그 실재 존재가 서로 상응할 수 있을까요?
십계명의 제 3계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이름과 실재 존재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재 그 이름이 가리

키는 하나님의 본질과 전혀 맞지 않는 헛바퀴를 도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부여하신 의미의 무게를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너무나도 그 이름을 소홀히 여기고 그 이름 부름에 전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면 되는 줄로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에 알맞은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엘 샤다이(전능하신 하나님), 엘 카도쉬(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호트(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부소부재하신 하나님 등 많이 있는데 이런 이름을 기억해야만 여호와의 이름을 알맞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맞게 부르려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재 존재에 상응하는 이름으로서 부르려면 우리 마음이 첫 번째로 부르는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불리는 이름은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그 존재의 순서를 따라서 불리게 됩니다.
김정은의 수행자들이 있는데 이북 방송에서 뉴스를 할 때에 앵커의 입에서 불리는 이름의 순서가 곧 그들의 서열이 됩니다. 또한 예를 들면 마취 수술을 했다가 깨어날 때에 처음으로 부르는 이름이 자기 아내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여자의 이름이면 문제입니다. 마음을 주는 사랑의 순서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마음은 첫 번째로 떠올려서 부르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름과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의 간격을 메우려고 하는 것이 추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두 번째로 부르는 이름들이 가리키는 존재는 첫 번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이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이름을 다 외워야 적절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다 모르더라도 알맞게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하나만 알더라도 첫 번째로 부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같은 모든 이름에 어긋나지 않게 부르게 됩니다. 반대로 모든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다 알고 있더라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첫 번째가 아니라면 알맞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사사기는 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행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방족속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이들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사가 중보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인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차원이 아니라 한 개인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 개인의 신앙이 이스라엘 민

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상태를 대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대표로 뽑힌 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영적인 상태는 마치 현재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상태와 나의 상태를 거울로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름과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서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알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봅니다.
'미가'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혹은 '누가 여호와를 닮았는가?'라는 뜻으로 '여호와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와 비견될 존재가 세상에 없다'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가 최고일까요? 미가와 그 어머니와의 관계를 봅니다. 미가가 그 어머니의 은 천백 세겔을 훔칩니다. 이 돈은 일반 근로자의 약12년 연봉에 해당되는 큰돈입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내 돈을 훔쳐간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놀란 미가가 훔쳐갔던 돈을 어머니께 돌려드립니다.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이해관계와 거리가 멀어야 할 모자관계가 돈으로 떡칠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가가 신당을 세우는데 자기 멋대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에봇과 드라빔 우상을 제작해서 신당에 두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복은 돈입니다. 그 어머니도 돌려받은 돈 중에서 은 이백 세겔을 돌려주면서 우상을 제작하는데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신당에 넣었다'고 합니다. '드라빔'은 수호신이지만 에봇과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점을 치거나 허탄한 예언을 할 때에 사용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하는데, 돈의 이름이 미가와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첫 번째로 불리는 상태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 번째로 부르면서 여호와의 뜻을 묻기 위해 중앙 성소가 아닌 자기가 만든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을 놓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항상 첫 번째로 불리는 존재의 이름을 추구하게 될 때에, 두 번째로 불리는 이름은 반드시 그 방편과 수단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도 이런 식입니다. 내 마음에 먼저 자식의 성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자식을 데리고 조기유학을 가면 좋을지 어떨지를 묻습니다. 내 자식을 어느 학원에 보내면 좋을지, 문과를 시킬지 이과를 시킬지 묻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어느 여자와 결혼을 시켜야 할지를 묻습니다. 마음에 자식의 행복과 형통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돈 사업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먼저 들어온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원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남편을 둔 아내가 딴 남자와의 외도를 순조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냐고 남편에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들어오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대상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과 존재를 추구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외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라는 남자와 외도를 하면서 남편이신 하나님께 외도를 잘

하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일지라도 외도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모두 영적인 외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눅14: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십니다. 내 목숨이 하나님보다 먼저 들어오게 된다면 내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마음에 사업과 투자의 계획이 들어와 있다면 잘못될까 하나님께 묻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에 먼저 사업과 돈이 들어와 있는 내 마음을 보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들어온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서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그 교제에 나도 참여하게 해주셔서, 돈 많이 벌어서 기뻐하려고 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투자 잘 해서 기뻐하려고 했던 마음만큼 하나님으로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투자나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것들이 없어도 충분히 기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으로 충분히 그것으로 기뻐하기를 기대했던 만큼 기뻐할 때 돈, 사업, 자녀, 투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외도하는 남자를 데려와서 남편이신 하나님께 이 남자와 잘 지내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미가가 어머니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 드린다면서 우상을 제작하는데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돈이 먼저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시라면 알맞은 이름을 불러드려야 하는데 첫 번째 이름이 되셔야 하고, 우리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나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첫 번째라면 어떻게 해야 사장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돈과 승진이 먼저 들어와 있다면 사장님께 잘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들어와 계시면 돈을 못 벌고 승진이 안 되더라도 사장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지를 묻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이 먼저 들어온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외도하는 여자가 순조로운 외도를 위해 남편에게 부탁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지금 하나님보다 먼저 들어와 이름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으로

배부름으로 그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간다는 상태가 되어야만,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뜻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에봇과 드라빔을 신당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돈의 이름이 먼저 들어가 있었으므로, 미가는 선민으로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자신을 더럽히며 걸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도와주셔서 죄의 습성을 따라 나도 모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대상들의 이름을 먼저 마음에 붙잡는 나를 보게 해주시고, 그러한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첫 번째로 오시고 하나님의 존재로 배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